구술자료 상세목록 (구술개요 포함)

사업명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사업개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동 일대는 염전-공업지대-주거지대로의 변화하는 큰 변화가 진행된 지역임. 이 중 1960-1990년대에 거주 및 근무한 동양제철화학 노동자 및 관리자, 인근 공장의 관계자, 지역주민, 소상공인, 관련 지역사회 인물 등으로부터 인근 지역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증언을 듣고 기록하고자 함.					
구술자명	유재형	**성 별**	남성		**출생연도**	1949년
면담자	조연희	**소 속**	학산문화원		**검독자**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동아리실 1		**면담지원**	이혜숙		
면담 일시	2026 년 8 월 4 일		**회 차**	1	**시 간**	1시간 17분 30초
자료번호						
구술 개요	구술자 유수동은 인천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68년부터 동양화학(현 OCI)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 인천 해안 매립과 공장 건설의 역사를 몸소 겪은 토목 기술자이다. 그는 인천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해안 제방 축조와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혁신적인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며 실무 현장에서 기술을 익혔다. 이후 군 복무 중 공병 작전과 행정 업무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 사단장 표창을 받았으며, 제대 후에는 인천제철을 거쳐 다시 OCI로 복직하여 한불화학, 울산 인산칼슘 공장 등 대규모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완수했다. 그는 당시의 OCI가 소다회 국산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했던 기업 위상을 생생히 증언하며, 이회림 회장의 개성 상인 특유의 리더십과 현장 중심의 경영 철학을 회고한다. 또한, 새인천 유원지 조성 공사 등 시민들을 위한 지역 공헌 활동과 그 시절 조개고개 일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애환을 현장 전문가의 시선으로 그려낸다. 이후 건설업계로 진출해 계산동 구획 정리 사업 등 지역 개발 현장을 누볐던 그는, 퇴직 후에도 기술자로서 인천의 도시 정비와 배수 시스템의 변화를 날카롭게 관찰해 왔다. 그는 과거 일제강점기나 초기 매립 시절에 비해 현재의 도시 배수 용량과 하천 준설 계획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단순히 땅을 넓히는 개발보다는 도시의 내실을 다지는 체계적인 기반 시설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기업의 산업 활동이 지역의 산 역사를 만들었음을 기억하는 그는, 사라져가는 산업 유산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인천이 과거의 토대 위에서 더욱 균형 잡힌 미래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주요 색인어	동양화학(OCI), 삼부토건, 대우건설, 인천제철, 한불화학, 유니온 백시멘트, 이회림, 최종명, 강봉기, 인천, 용현동, 학익동, 옥련동, 조개고개, 낙섬, 송도 석산, 계산동, 새인천 유원지, 소다회, 화이트카본, 제방 축조, 공유수면 매립, 공업용수, 흉관, 플랜트 건설, 구획 정리, 개성상인, 어족 자원, 동인천·신포동 회식 문화, 군 복무(공병 부대), 장영자 사건, 갯벌(펄), 도시 배수 시스템, 하천 준설, 침수 문제, 산업 유산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동양화학 입사 계기와 초기 사회활동	00:00:34 ~ 00:03:02	
• 사회 초년생 시절 동양화학(OCI) 입사 및 군 복무 후 재복무 경험. • 인천시 공무원 출신 지인(강봉기 씨)의 권유를 계기로 인터뷰에 참여하게 된 경위.		
2. 동양화학 제방 축조와 초기 공장 건설 현장	00:03:03 ~ 00:18:04	
• 제방 공사: OCI 직영 제방 축조 과정, 송도 석산 발파 및 협궤 열차 운반 공정. • 토목 설계: 제방 규격(높이 12m, 폭 2.5m) 및 수압을 이용한 자동 수문 시스템 구축. • 주변 환경: 조개고개 일대의 갯벌 환경, 어족 자원,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1.5m 대형 흉관 매설 작업. • 현장 사고: 열악한 안전 수칙 속에서 발생한 석산 발파 사고와 희생자들, 그에 대한 기술자로서의 기억.		
3. 초대형 공장 OCI와 당시의 시대상	00:18:05 ~ 00:25:23	
• 기업 규모: 국내 최초 소다회 생산 시설 건설과 이회림 회장의 리더십 및 막대한 재력. • 직장 문화: 자체 발전소 건설, 냉각수 조달 시스템 구축, 동인천·신포동 일대의 회식 문화.		
4. 군 복무 시절과 OCI 복직, '새인천 유원지' 공사	00:25:24 ~ 00:49:57	
• 군 복무 (1969~1970): 공병 부대 작전과에서 공사 내역서 및 차드 작성 업무 수행, 사단장 표창 수상. • 복직: 인천제철을 거쳐 OCI 최종명 공장장의 요청으로 복직. • 새인천 유원지: OCI 사유지 내 유원지 풀장 건설 및 당시 인천 3대 풀장으로서의 위상. • 주요 경력: 한불화학(롱프랑 합작) 및 울산 인산칼슘 공장 건설 등 기술부 주요 프로젝트 수행.		
5. 다양한 플랜트 건설 참여와 OCI 퇴사	00:49:58 ~ 00:58:30	
• 퇴사 사유: 기사 직급에서의 진급 누락 및 건설업계로의 이직. • 건설업 활동: 계산동 구획 정리 사업, 강원도 도로 공사 참여와 어음 부도 사태. • 특별 작업: 2년에 걸친 전직 OCI 사장 자택의 정밀 설계·시공(오크 목재 및 십장생 조각 적용).		
6. 기술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인천의 변천과 아쉬움	00:58:31 ~ 01:16:00	
• 소회: 젊음을 바쳐 건설했던 산업 현장이 사라진 것에 대한 기술자로서의 허전함과 보람.		

• 도시 비판: 일제강점기 및 초기 매립 시기 대비 급격히 줄어든 하천 배수 단면적(퇴적물 문제) 지적. • 기술적 제언: 펌프장에만 의존하는 침수 대책을 비판하며, 근본적인 준설과 배수 계획의 보완 필요성 강조. • 개인적 배경: 1·4후퇴 당시 내려온 개성 출신 피란민으로서의 기억과 인천 숭의동에서의 삶.		

공개여부	■ 전체 공개 □ 전체 비공개 □ 부분 공개
활용동의	■ 동의함 □ 동의 안 함 □ 조건부 동의
특이사항	